

연구위원 및 공동연구자·연구협력자 명단

한 국 측

연구위원

이 찬 희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
정 재 정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김 도 형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정 진 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현 명 철	경기고등학교 교사
신 주 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는 교과서위원회 한국측 간사)

공동연구자

연 민 수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	--------------------

일 본 측

연구위원(간사 이하 50음순)

후루타 히로시(古田博司)	筑波大學 大學院 人文社會科學研究科 國際公共政策專攻 教授 ★
기무라 간(木村幹)	神戸大學 大學院 國際協力研究科 教授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早稻田大學 國際教養學術院 教授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佐賀大學 文化教育學部 准教授
아마우치 마사유키(山內昌之)	東京大學 大學院 總合文化研究科 教授
야마무로 겐토쿠(山室建徳)	帝京大學 理工學部 准教授

(★는 교과서위원회 일본측 간사)

연구협력자(50음순)

이이무라 도모키(飯村友紀)	筑波大學 大學院 博士特別研究員
이시다 마사하루(石田雅春)	廣島大學 文書館 助教
이데 히로토(井手弘人)	長崎大學 教育學部 准教授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京都府立大學 文學部 准教授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	鹿兒島國際大學 國際文化學部 准教授
후쿠시마 히로유키(福嶋寬之)	福岡大學 人文學部 歷史學科 專任講師

제6권 목차

양국위원장 공동 인사말

한국측 위원장 서문

일본측 위원장 서문

연구위원 및 공동연구자·연구협력자 명단

전체보고서 목차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1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4
제1부 이념	7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7
정재정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9
-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 -	
비평문(야마우치 마사유키), 집필자 답변	
정진성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41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야마우치 마사유키·후루타 히로시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	87
- 아시아주의와 세계사 교과서 -	
비평문(정재정)	

제2부 제도·편찬	131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133
이찬희 한일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135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집필자 답변	
야마무로 겐토쿠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165
-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교과서의 경우 -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나가시마 히로키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의한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朝鮮史’ 교육	
- 小田省吾에서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	203
비평문(정진성), 집필자 답변	
〈교과서문제의 史的 전개〉	235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	237
- 1982년과 2001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이데 히로토·후쿠시마 히로유키·이시다 마사하루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269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전체보고서 목차

제1권(제1분과편)

머리말

논문편

- | | |
|-----------------------|---|
| 조범중 | 古代 韓日關係의 成立
- 彌生文化 主體問題에 대한 檢討 - |
| 하마다 고사쿠 | 古代 日韓關係의 成立
- 地域 間의 交流에서 古代國家의 關係로 - |
| 김태식 | 古代 王權의 成長과 韓日關係
- 任那問題를 包含하여 - |
| 모리 기미유키
·하마다 고사쿠 | 古代 王權의 成長과 日韓關係
- 4~6세기 - |
| 노태돈 |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韓日關係
- 7~9세기 - |
|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韓關係
- 7~9세기 - |

좌담회 토론문

-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

연구활동기록

연구 후 소감

조법종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활동을 정리하며
하마다 고사쿠	공동연구를 끝내고
김태식	공동연구 말미의 단상
모리 기미유키	공동연구를 마친 소감
노태돈	공동연구를 마치고
사카우에 야스토시	공동연구를 마치고

제2권(제2분과 한국편)

머리말 활동기록

제1부 논문편

- | | |
|-----|--|
| 손승철 |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 왜구의 구성문제를 포함하여 - |
| 이계황 |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
| 한명기 |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 왜관 문제를 둘러싼 대일인식을 중심으로 - |

제2부 좌담회 토론문

제3부 연구사편

- | | |
|-----|---|
| 이재범 | 고려 전기 한일관계사 연구 현황 |
| 김보환 | 한국 내 왜구 연구의 학술사적 검토 |
| 한문중 |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2000년~2007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 |
| 노영구 |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

제4부 사료해제집편

- | | |
|-------------|--------------------|
| 손승철·김강일·이상훈 | 중·근세 한일관계 사료해제집 해설 |
| 손승철·김강일 | 조선시대 한일관계 사료해제 |
| 이상훈 | 임진왜란 관련 사료해제 |

제3권(제2분과 일본편)

머리말

활동보고

제1부 논문편

- | | |
|----------|---|
| 사에키 고지 |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
| 구와노 에이지 | 동아시아 세계와 文祿·慶長の 役
- 朝鮮·琉球·日本에 있어서 對明外交儀禮의 관점에서 - |
| 스카와 히데노리 | 17~18세기의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 글로벌 히스토리와의 접속 - |

제2부 좌담회 토론문

제3부 연구사편

- | | |
|-----------|---|
| 모리히라 마사히코 | 10세기~13세기 전반 麗日關係史의 諸問題
-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 |
| 나카다 미노루 |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
| 아라키 가즈노리 | 16세기 日朝交流史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
| 나카노 히토시 | 文祿·慶長の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
| 야마구치 가요 | 日本에 있어서 왜관 연구의 동향 |

제4부 사료해제집

- 사에키 고지·스카와 히데노리·구와노 에이지 편
중세·근세 일한관계 사료해제집

제4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1부 한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상호관계

제1장 주권과 독립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하라다 다마키

大韓國國制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 대한제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방식 -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장 권력과 국민

조성윤

개항 초기 서울 지역 민중의 근대적 국민의식 형성과정과
반일의식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쓰키아시 다쓰히코

근대 조선의 국민국가 창출과 입헌군주제론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부 일제 식민지기 조선과 일본의 사회변동

제1장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

류승렬

일제하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조작과 강제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 오카모토 마키코 조선총독부 관료의 민족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 민족문제와 민족격차의 내포 -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 제2장 근대화
- 정태헌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 야마다 간토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 제3장 전시체제
- 정혜경 송출과정을 중심으로 본 전시체제기 조선인 국외노무동원의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 아리마 마나부 1930~40년대 일본의 문화표상 속 ‘朝鮮人’
- 영상사료를 실마리로 -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제5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3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

제1장 경제

허영란

해방 이후 식민지 법률의 정리와 탈식민화
- ‘구법령’ 정리 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요시오카 히데미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 2000년대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2장 외교

이석우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기미야 다다시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의 청구권 문제 재고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3장 대중문화

이성환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집필자 답변

야마나카 지에

‘기껏해야 만화’를 통해서 보이는 일한 사회는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4부 사람의 이동과 여성

제1장 사람의 이동의 한일상호비교

하종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오니시 유타카	제국의 형성·해체와 주민관리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제2장 여성의 사회진출의 한일상호비교

양현아	식민지 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와 ‘관습’ 문제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하루키 이쿠미	근대 일본과 조선의 良妻賢母主義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자료집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제6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1부 이념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 | | |
|-----------------------|---|
| 정재정 |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 -
비평문(야마우치 마사유키), 집필자 답변 |
| 정진성 |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
| 야마우치 마사유키
·후루타 히로시 |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
- 아시아주의와 세계사 교과서 -
비평문(정재정) |

제2부 제도·편찬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 | | |
|----------|--|
| 이찬희 | 한일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집필자 답변 |
| 야마무로 겐토쿠 |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 교과서의 경우 -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
| 나가시마 히로키 |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의한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朝鮮史’
교육 - 小田省吾로부터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
비평문(정진성), 집필자 답변 |

〈교과서문제의 史的 전개〉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
 - 1982년과 2001년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이데 히로토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후쿠시마 히로유키

·이시다 마사하루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제7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3부 기술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 | | |
|---------|---|
| 현명철 | 일본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
| 오타 히데하루 |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 ‘朝鮮의 役’의 제문제 -
비평문(현명철), 집필자 답변 |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 | | |
|-------|--|
| 김도형 | 韓日 歷史教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
| 기무라 간 |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
비평문(김도형), 집필자 답변 |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 | | |
|------------------------|---|
| 신주백 |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 서술의 변화
(1945년~현재)
비평문(시게무라 도시미쓰) |
| 시게무라 도시미쓰
·이이무라 도모키 | 일한 상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 현대사 기술방식 분석 -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 연민수 日本歴史教科書の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 이노우에 나오키 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기술
- 문제점과 변천 -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한일 관계를 흔히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표현하듯이 양국 사이에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할 때도 있었고, 그 한편에 식민지 지배나 전쟁이라는 불행한 시대도 경험하였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양국 사이에 역사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 이른바 “교과서 파동”이라는 일이 일어난 지도 오래 되었다.

이러한 역사 논쟁을 해결하고 미래 지향의 역사 교육을 위해 한일 양국은 2001년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1기의 활동에 이어 2007년 6월에 제2기가 발족하면서 한일 양국의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위원회(소그룹)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본 교과서위원회에서는 다면적인 교류를 축으로 한 한국사와 일본사와의 연결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교과서의 서술에 나타난 양국의 역사에 관한 상호 이미지나 평가를 허심탄회하게 비교 검토해 왔다.

그리하여 2009년 11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합동회의에서의 솔직한 의견 교환과 논의를 최종적인 토대로 하여 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교과서위원회는 양국에서 각각 6명, 모두 12명의 위원이 참가하였다. 한국측은 이찬희(한국교육개발원), 정재정(서울시립대), 김도형(연세대학교), 정진성(서울대학교), 현명철(경기고등학교), 신주백(연세대학교), 일본측은 후루타 히로시(筑波大學), 야마우치 마사유키(東京大學), 시게무라 도시미쓰(早稻田大學), 야마시로 겐토쿠(帝京大學), 기무라 간(神戸大學), 나가시마 히로키(佐賀大學) 위원 등이다.

처음으로 설치된 분과였기 때문에 공동연구의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분과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초에는 다른 분과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은 다루지 말고 교과서 이념과 편찬, 제도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혹은 교과서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공동연구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하여 무려 6개월이나 되는 논의를 통해 연구 활동의 주제를 한일 역사교과서의 이념, 교과서의 편찬 제도, 교과서 기술 방식 등의 항목으로 정하게 되었다.

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 이념 -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 편찬 -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 교과서 문제의 史的 전개
- 기술 -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이렇게 정해진 개별 주제에 따라 평균하면 2개월에 1회씩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공동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된 내용에 대해 차분히 토론을 하였다.

공동연구는 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위원이 담당하기가 곤란한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공동연구자(연구협력자)로 위촉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형태로 참여한 사람은 일본측은 이이무라 도모키(筑波大學), 이시다 마사하루(廣島大學), 이데 히로토(長崎大學), 이노우에 나오키(京都府立大學), 오타 히데하루(鹿兒島國際大學), 후쿠시마 히로유키(福岡大學), 한국측에는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여러분이었다.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발표에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한일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때로는 공동연구를 통해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다. 물론 활동 중간에 한동안 합동회의를 열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기도 하였다. 본 공동 보고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판되었다.

이 공동연구의 최종단계는 우연히 한일 쌍방에 있어서의 신정권의 성립과도 겹쳤다. 2009년 10월 9일에 한일 양국의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인은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진정성과 열린 마음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게 평가하며, 두 정상은 앞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것에 일치했다.”

이에 대하여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신정권은 역사를 똑바로 직시할 용기를 가진 정권이다. 단,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인 유예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으로 일한 관계

를 양호하게 발전시켜 가는 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와 평화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위원회 위원들의 사명이었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역사공동연구이라도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점에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양국 정상의 뜻과도 연결되는 한일역사공동연구 특히, 양국 교과서의 비교 검토와 연구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역사 사실의 해석에 있어서의 솔직함과 공정성이었다. 교과서위원회의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서로 겸허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공동연구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나 세계의 문맥으로 양국의 역사를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를 한 것이다. 이러한 넓은 시야는 2009년 10월 9일의 한일 양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의 정신과도 통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의 한일역사공동연구에 어울리는 성과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본 보고서의 작성을 목표로 한일 양국이 모두 거의 중요 분야를 망라하는 연구자가 모이게 되었다. 이 정도의 멤버가 한일 쌍방에서 같은 주제로 논문을 집필하고 쌍방의 교과서 인식을 이해하면서 솔직하게 논의한 것은, 일찍이 없는 귀중한 경험이며 유익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굳이 말하자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의 존중이야말로 교과서위원회에 있어서의 한일역사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기본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 정신에 입각한 본 보고서는 불충분하지만 했수로 3년간에 걸친 한일 양국 전문가에 의한 노력의 증거다. 독자 제현께서 우리들의 微衷을 짐작해주시면 다행이겠다.

2009년 11월 28일

교과서위원회 한일 양국 위원 일동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2007년

- 6월 23일 제1차 합동분과회의(東京·뉴오타니호텔, 제1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한국측 연구위원 : 이찬희, 정재정, 김도형, 정진성, 현명철, 신주백
일본측 연구위원 : 古田博司, 山内昌之, 重村智計, 山室建徳, 木村幹, 永島廣紀
- 9월 14일 제2차 합동분과회의 (서울·연세대 상남경영관 회의실)
- 10월 13일 제3차 합동분과회의 (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 회의실)
- 11월 24일 제4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2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 공동연구 주제 확정 - 교과서의 이념, 제도·편찬, 기술방식에 관한 8주제

2008년

- 1월 12일 제5차 합동분과회의 (鹿兒島·城山관광호텔)
(발표자)
이찬희 한일중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및 운용실태 연구
-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
木村幹 왕궁이 소멸되는 날 - 근대에 있어서 조선의 왕권 -
- 5월 31일 제6차 합동분과회의 (제주·서귀포KAL호텔)
(발표자)
현명철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기술의 변화
山室建徳 일본에 있어서 국정 교과서 도입과 그 변천
신주백 한일 역사 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1945~현재)
- 상호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
- 6월 7일 제7차 합동분과회의 (東京·빌라폰테뉴 汐留, 제3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발표자)

- 永島廣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의한 교과서 편찬과 ‘국사/조선사’ 교육
- 10월 25일 제8차 합동분과회의 (札幌・北海道大學)
(발표자)
정재정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 ‘15년전쟁’과 ‘식민지 조선’ -
정진성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古田博司・山内昌之 일한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문화권’ 논의 변천
- 어느 모던한 메타스토리의 종언 -
- 11월 29일 제9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4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발표자)
박찬승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민족문제와 민족운동
- 12월 19일 합동심포지움 개최 (東京·뉴오타니호텔)

2009년

- 1월 10일 제10차 합동분과회의 (부산·해운대그랜드호텔)
(발표자)
김도형 한일역사교과서에 기술된 근대 한일관계와 조약
木村幹 일한역사학계에서의 ‘내재적 발전론’과 역사교과서 (재발표)
박삼현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1980년대 일본의 대응 논리
- ‘임시교육심의회’ 설치 논리를 중심으로 -
- 4월 4일 제11차 합동분과회의 (오이타 유후인・山水館호텔)
(발표자)
井手弘人 한국 역사 교육의 변천을 개관한다
- ‘메타 인식’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
井上直樹 한국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記事와 ‘국사’
太田秀春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 ‘朝鮮의 役(임진왜란)’의 제문제 -
- 11월 7일 제12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시티호텔)
(발표자)

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飯村友紀 한국 현행 교과서의 서술에 보이는 기본구조와 특징

- 남북통일과 ‘세계화’ 그리고 ‘열린 민족주의’ -

연민수 일본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民族·天皇問題

신주백 한일 역사 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

福嶋寛之 교육투쟁의 논리 - 진보적 교육학자 무나카타 세이야(宗像誠也)의

‘국민의 교육권’론을 중심으로 -

石田雅春 戰後 日本에서의 교과서문제

11월 28일 제13회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5회 전체회의 동시 개최)

(발표자)

重村智計 일한상호 Orientalism의 극복(가논문) - 현대사 기술 방식 분석 -

12월 19~20일 한일합동비평회 개최(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 회의실)

(본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각국의 독자적인 활동이 있었다.)